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新聞

발행인 金澤玉 주 간 鄭大然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任尚繁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전화: (직) 54-2278-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28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인기]

The Che-dai Shinmoon

1991년 9월24일 화요일

1

‘도민이 원하지 않는법 반드시 폐기돼야’ 19일 거의 모든 학과 휴강 궐기대회에 참석 법제정 저지... 상경투쟁등 모든 방법 총동원 결의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예견했던 대로 중앙부처의 심의 과정에서 당초의 시간과 상당한 변질된 ‘중상통제형’으로 바뀌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법제정의도가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특별법제정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19일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제1차 범도민 궐기대회’가 범도민회 주최로 탐라대입지에서 열려 특별법제정 저지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오육만 여민회 부회장, 강연자 범도민회 대변인인 사·회로 진행된 이번 궐기대회에는 재야단체 및 시민과 제충협소속학우를 비롯, 한림지역회의, 조천읍민회·대정지역대책위·안덕지역대책위·한림지역대책위 농민등 2천5백여명의 도민들이 참석해 전도적으로 확산되는 특별법저지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시켰다.

도내에서 6공돌이 최대집회였던 이번 대회는 특별법저지투쟁 경과보고·궐기대회·대회사·공동대표소개·제주개발을 위한 우리의 입장·발표·입법부에 보내는 메시지·남북·전남과 전대협·전교조 지지성명·성명서 채택·출정선언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석지 (사회교육과 조교수)법도민회 정책위원장은 ‘제주개발을 위한 우리의 입장’발표에서 “한라산을 파헤치고 가슴에 말뚝을 박으려는 특별법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데는 분명한 이유와 주장이 있다”고 전제, “특별법이 제정되면 삼릉도 지역제한에 의한 개발행위규제가 해체되어 환경과 자연이 크게 훼손·오염될 것이며 △지하수 함양지대인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고갈됨은 물론 △관광위주의 불균형적 개발로 인한 1차산업기반이 위축되고 △의사자본에 의한 관광개발의 가속화로 외지자본에의 예측과 주민소외의 발생이 증대된다”는 등의 문제제를 지적하면서 “특별법은 조문이나 자구의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와 대야함”을 주장했다.

또한 ‘입법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법의 의도와 추진과정·절차의 비민주성에 대한 도민의 분노가 증폭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거역이며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 “제주도민과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률은 정당하게 심의하여 특별법을 폐기하거나 유보해



△‘특별법제정반대’를 위한 제1차 범도민 궐기대회’가 지난 9월19일 오후 3시부터 탐라대입지에서 2천5백여명의 학우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법저지 투쟁에 대한 제주도민의 뜨거운 열기를 과시했다.

줄 것”을 요구했다.
5시30분경에는 범도민회의 공동대표와 지역대책위 소속 농민들을 선두로 평화대행진을 시도, 대기중이던 전경 5백여명과 입구에서 15분동안 대기하다가 출정, 전경들이 교통을 통제하는 가운데 저녁 7시30분 광양로터리에 집결했다.

집결정연하게 진행된 제3부 결의대회에서 김태섭 범도민회 공동대표는 도의회의원구단성명을 통해 “특별법 제정반대를 왜곡하고 제주현안문제를 외면, 공식입장에 대한 일관성도 없는 반도민적·반대표적·기회주의적 배신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범도민회와 함께 특별법 반대투쟁

에 동참하고 특별법 반대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범도민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없고 도민의 지위투쟁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간의 분절적인 소모입력을 과감히 통합하고 범도민회를 중심으로 상경투쟁은 물론, 제주도의회의원·법도민회의 연합투쟁체 건설로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특별법 철폐를 보장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역민이 거부하고 공유하지 않는 의사관철은 지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동시에 지자체의 유명무실을 정권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저지투쟁은 ‘송악산 군사기지설치 반대투쟁’과 ‘안민도 해폐기를 처리할 설치 반대투쟁’처럼 전주민이 들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결코 관철될 수 없다. 도민의 생활이 걸린 중대사건 만큼 도민의 의지로 중상통제형의 수정안은 물론 ‘특별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끝나서 10월5일까지 지켜본다’는 범도민회의 결의사항이 달라오른 투쟁열기를 식히게 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때문에 적극적인 확실한 투쟁안이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개발만 앞세우는 음흉한 의도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 다.

김총장·기획실장등 訪日 長崎大와 학술교류협약 대학발전기금 모금등 위해

10월중 학사일정
△중간고사=12일이전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1차 공개발표=8일
~12일 △교육대학원 논문
공개 구두발표=11일
~18일 △주제아라체전
=10월중

김형욱 총장·부만근 기획실장·김수중사법대학장·오현도(농학과)교수 일행이 오는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재일제주출신인사 및 금년 2월5일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나가사키대 등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 기간동안 김총장일행은 내년 4월 중순에 우리학교 공과대학과 나가사키대 공학부가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인 ‘한·일 하이테크 심포지움’과 양교의 학술교류 협정 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교류내용 및 방법 전반에 걸쳐 나가사키대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일 하이테크 심포지움’과 관련해 양교(해양토목공학과 부교수)·김귀식(기공학과 부교수)교수가 지난 7월12일부터 15일까지 나가사키대를 방문해 심포지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한 바 있다.

내년 4월 중순에 나가사키대에서 개최예정인 ‘한·일 하이테크 심포지움’은 우리학교 교수 15명과 나가사키대 교직원·대학생 50명등이 참석해 3일간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 심포지움에서는 전기·전자·정보·기계·원자핵공학·구조토목·건축·사회개발·환경·재료·화학·생물·공학등 13개분야에 대한 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김총장일행은 이번

방문 중에 도쿄(26~27일)와 오오사카(28~30일)에서 재일 제주출신 인사들을 만날 예정인데, 총장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과 만나 현재 우리학교가 추진중인 대학발전기금모금운동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총장은 28일 오오사카에서 재일제주청년회 창립 제25주년 기념식에 참석, 특강을 할 예정이다.

토플 모의시험 실시

어학연구소(소장양영수) 영어교육과 부교수) 주최 ‘TOEFL 모의시험’이 오는 9월30일 오후 5시부터 경상대 0119 및 0321강의실에서 실시된다.

(주)시사영어사 협조로 시행되는 이번 모의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우들은 오는 9월28일까지 사법대2층 어학연구소(경상대생인 경우 경상대교과로)신청접수하면 되는데 응시료는 무료이다.

발전기금 5백만원내바 지난 19일 김형욱총장

김형욱총장이 지난 9월19일 대학발전기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로써 발전기금은 모두 1억1천7백4만5천7백50원이 조성됐으며 기탁자수는 26명이 됐다.

둘하르방

우리는 더이상 희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법외의 전쟁 선포 직후인 지난해 10월19일 학생들의 파출소 습격 때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방어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일선파출소에 내려졌다. 이는 서울 마포경찰서의 한 파출소가 대학생 20명으로부터 화염병 습격을 받았을 때 공포탄을 쏘지 않아 시위대에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파출소 습격 때 공포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검거하라”는 공권력의 강력한 시위탄압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그뒤 학생들의 파출소 습격시 총기 대응은 일상이 되다시피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모두 1백15건의 파출소 습격과 29건의 총기사용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의 집계결과 나타났다.

우리지역에서도 작년 5월 ‘민자당 일당 독재’에 분쇄 및 도민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1차 도민대회’진행 도

중 주변 집회 동태를 파악하던 사복 경찰들이 남문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했는데 이에 경찰측이 10여발의 공포탄을 쏘아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던 적이 있다.

경찰의 이같은 총기사용은 초기 공포탄으로 시위대를 심리적으로 제압하고 해산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총기사용이 잦아지면서 사교의 위험성은 높아지기만 하고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결국 갖은 총기사용은 무절제한 총기사용으로 이어지고 공포탄만이 아닌 실탄까지 동원하는 무절제한 총기남용은 점점 많은 희생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19일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발사한 8발의 실탄중 명치와 가슴에 2발을 맞아 즉사한 서울대학생 한국원씨의 총기사망사건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이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번 사건은 고문으로 죽이고,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고, 군화발로 짓밟아 죽이고도 모자라 총기사용까지 불사하지 않는 공권력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그 포악함이 더해져만

가고 있는데 따른 비극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민생치안유지에 그 목적이 있는 ‘법외의 전쟁’의 실상은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학생운동 등 민주화 운동 탄압을 한층 가열하기 위해 ‘범죄소탕’을 내세운 허울 좋은 현 정권의 전술일 수밖에 없다.

노경원은 이제 집권당에 접어들어 저들의 권력수호현상을 막기위해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정권타도를 외치는 민중들의 요구도 더욱 드세질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경찰의 시위파괴진압에 의해 쓰러져간 이가 몇명이고 잔혹한 고문, 수많은 의문사로 쓰러져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또한 그럴 때마다 정권은 어떤식의 입장을 표명했는가.

늘상 열도당도않은 변명을 해대며 일기응변식으로 이를 넘기기에만 급급해하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들은 정권의 공세한 변명에 수긍할만큼 결코 어리석지 않다. 민중들은 더이상의 희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민중을 우습게 보는 현정권의 작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京]

이 땅의 젊은이가 본 제주는 지금

강정효



- (1부) 뿌리를 찾는 글들
- (2부) 제주개발에 가려진 실제
- (3부) 제주도 개발 특별법
- (4부) 제주의 내일을 위해

타라가 한반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 이후 일천 수백여년동안 이 땅의 민중들은 온갖 고난속에 살아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다룬이 땅의 주인인 제주인의 시각에서, 제주인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의 모든 현상에서 그 주체는 반드시 제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머리말에서-

나라출판 4,000원

●組織과 民主主義 참고도서

유고슬라비아 노동자지치관리제도와 조직권력 ●인간적 사회주의를 위한 하나의 시도

高忠錫 지음



유고슬라비아는
東歐 共產體制 변혁의
선구자로서 1948년 여름
모스크바와 결별하여
스탈린體制를 청산하고
自治管理社會主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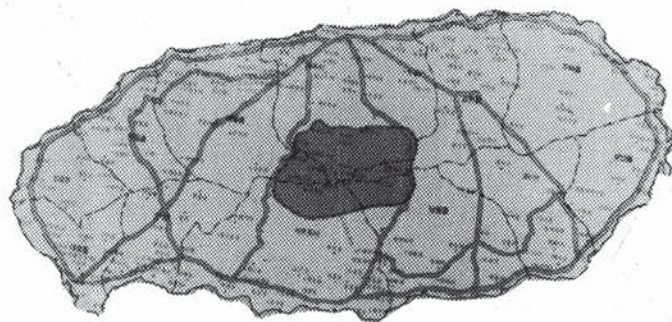
기틀을 다져온 나라이다. 東歐의 여러 나라들이
혁명적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치관리사회주의는 유고인의 중요한 社會的 價値로서
그 바탕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자치관리 사회주의의 무엇이 그들의 의식 형태를
이제껏 支配하고 있는지, 그 制度가 걸어온
失敗와 成功의 歷程을 一瞥해 본다.

法文社 5,000원

우리/땅/의/의/미/를/찾는 제주기행

●고창훈의 지음●



땅이 인간의 삶을 열어 주었듯이 인간은 땅
위에서 삶과 역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땅은 어
제의 역사를 보여주며 오늘의 삶을 드러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토를 관광하고 여행하고 순
례하면서 땅의 아름다움을 보기도 하고 역사와
인간의 삶을 몸으로 새길 줄 한다.

이 책은 ‘지금, 여기’를 찾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이야
기들이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감
으로써 관광객에게는 관광의 의미를, 여행자에
게는 여행의 의미를, 순례자에게는 순례의 의미
를 새롭게 생각하게 할 것이다.

백산서당 4,000원

濟州散調

姜通源詩集

姜通源의 시는 감
각 내지 感性에 의
지하면서 形而上
의 觀望도 아니
고, 경합적(絶對)이면서도 形而下的 具體주의에
의존하고 있지도 않은, 말하자면 이 양자를 잘 융
합하면서 깊은 성찰로 神과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
고 있고, 한편으로는 現象(側面)에서 인간과 생물의
사회와의 관련을 통해 철학적 존재를 추구하고 있
다. (최광림)

그리움

그리운 사람
기다리니
더욱 외로워진다.

기다리는 사람
그리워
만나니
더욱 그렇고

그리운 사람
다시 만나니
더욱 괴로워진다.



志成文化社 2,500원

社說

특별법입법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주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입법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정부·여당은 특별법입법의 내용 '중립적 제형'으로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제주도개발특별법' 입법과 관련된 사태의 전개는 최종적이고도 본질적인 국면에 이르렀을 이 명백하게 되었다. 여당까지도 다수 영등촌 요소들이 개입되어 문제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입법문제에 본질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있었던 것이다.

특별법입법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이제 너무나 분명해진 것처럼 특별법입법의 추진 자체가 정부·여당이라는 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법입법문제의 최종적 결정권을 그 문제제기 당시부터 제주도 주민이 아니라 제주도 주민의 의사와는 충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내에서 특별법안을 만들어 본을 중앙에서 자신들의 의도에 합치하지 않는 부분은 변경시켜 버릴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꾸준히 지적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특별법입법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제주도개발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문제의 본질을 여지로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특별법과 2차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최근의 사태는 제주도 주민들이 정부·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제주도개발정책의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제주도개발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정부·여당의 개발정책은 관광개발이라는 신화 아래에서 너무나 관광산업에 치중되고 있다. 둘째, 그러한 개발을 이른바 '민자유지'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동원이 용이한 독과점재벌의 자본으로 행려하고 있다. 셋째, 더구나 그러한 대규모 자본의 유치수단으로 토지이용규제완화, 토지수용권확대 또는 선매권부여 등의 토지투기적 특혜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아니라는 것은 몇 번에 걸쳐 제시된 특별법안의 내용과 2차종합개발계획안의 내용에 의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여기에서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주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개발방향이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발방향을 부당성은 지역주민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제도를 완화하고, 왜곡된 경제체제 분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하는 90년대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와 전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방향의 개발정책은 우리 사회 최대문제인 평등제와 재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특별법입법문제의 본질은, 이것이 단순히 지역내의 이해관계 대립에서 생기는 '지역적문제'가 아니라, 중앙·지방간의 권력배분, 사회계층간의 경제적 분배, 우리 정치권력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서 '국가적 문제'라는 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법입법문제에 대하여 야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관심이 기울여지기를 호소하며 또 특별법입법문제를 지역적 문제라고 축소·왜곡시킴으로써 이 문제가 국가적인 쟁점으로 제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가 중단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大漫評



전·후기 분할모집 계획 전면백지화
고득점자 증가등 장점있으나 단점 더 많아

지난 9월16일 학무회의와 18일 입시관리위원회를 열고 급년 3월부터 검토해온 전·후기 분할모집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 입시제도를 고수하기로 했다.

학교당국은 몇년전부터 우리학교가 우수학생유치를 위해서 신입생 전·후기분할 모집을 병행해야 한다는 학내외의 여론에 따라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고 지난 4월초 정대원(사회학과 부교수)·허철수(교과과 부교수)교수에게 전·후기분할모집의 효과 및 타당성 조사를 용역 의뢰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후기 분할모집은 △합격점 및 학력고사 평균점 상승 △경쟁률상승 △고득점자 증가등의 장점이 예상되는 반면 △전·후기 입학자 상호간의 집단별 갈등 및 수업분위기가 산만 △학과간의 격차 심화 △장기간의 입시관리로 인한 인력동원의 어려움등 단점이 전방되다는 것이다.

또한 미등록자·휴학·자퇴

자가 증가하고 후기 고득점 합격자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소속감·애교심 결여등의 우려가 크다는 진단이다.

이번 전·후기 분할모집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참여했던 정대원(사회학과)부교수는 전·후기분할모집을 할 경우 "원래 전기에 우리학교를 지원 예정인 학생들 가운데 중위권 성적의 학생들의 약 60%가 전기에 육지부 대학에 지원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학력고사 2백50점 이상 학생을 가운데 일부가 전기 시험에 실패할 경우 후기에 우리 학교에 지원할 의사를 보였으나 그들 가운데 약 60%가 합격후 휴학의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당초 학교당국에서는 92학년도부터는 신입생을 전·후기 분할모집한다는 방침하에 3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린 학·처장회의에서 전·후기분할모집에 대한 작업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었다.

이는 그간 전·후기분할모

집에 대한 건의가 학내외에서 여러차례 있어온데 대한 것으로 지난 2월12일부터 3월5일까지는 각 학과별 교수회의를 통해 전·후기 분할모집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때 9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전·후기로 분할모집하기로 합의한 학과는 5개 대

학의 13개학과(△인문대학: 사학과, 사회학과 △법정대학: 법학과, 행정학과 △경상대학: 회계학과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공과대학: 식품공학과, 기공학과, 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1백41명 선으로 나타났다.

학우 31명 입상
제7회 도미술대전에서

한국예총 제주도지회가 주최한 제7회 제주도 미술대전에서 우리학교 학우 31명이 입상했다.

지난 9월16일 한국예총 도지회가 발표한 우리학교 학우들의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양화 △대상=김정희(미술학과3) △우수상=양경

식(4) △특선=이수경(1) 오의숙(3) 최경희(4) △입선=이명숙(2) 현금숙(3) 최경희(4) 김은숙(2) 박은영(2) △한국화 △입선=이미순(4) 이규선(3) △조각 △입선=양동훈(4) 장민(3) 김상현(1) 고명희(4) △판화 △입선=백희삼(3) 양혜순

경상대 학생회칙 공포

1988년 사회과학대학이 경상대와 병합된 후 그간 학생회칙 없이 운영돼 왔던 경상대 학생회(회장 윤철수 부회장3)에서는 지난 9월11일 2백50여명의 경상대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상대 학생총회'를 법정대중강당에서 열고 학생회칙안을 상정, 2백40여명의 학우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1월초부터 각학과 부회장을 중심으로 회칙 기초안을 작성 한후, 학내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날 학생총회에서 통과된 경상대 학생회칙은 전문을 비롯 해 총 10장 56조 부칙 2조로

구성돼 학우들의 권리와 의무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 회칙은 9월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그 효력을 발휘했다.

중국학자 초청세미나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중국학자 초청세미나 '중국사회의 장래와 한·중관계'가 동아시아연구소(소장 고성준 교수 국민윤리교육과)와 지역발전연구소(소장 김태보 교수 경제학과) 공동주최로 오는 9월25일 오후 2시부터 사범대학 332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초청세미나에는 중국학술원장 鄭永福(부총장겸 경상대학학장)교수와 金南浩교수가 각각 "중국식사회주의의 전망", "한·중관계의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며, 고성준교수의 사회로 고남욱(경제학과)교수·김태보(경제학과)부교수·강근형(국민윤리교육과)부교수간의 토론도 있게된다.

또한 동아시아연구소에서는 "기회, 선택 그리고 정의"라는 주제로 브라이언 베리(런던 정치경제대학 교수)교수 초청특강을 오는 10월4일 오전 10시 교육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강연

C.M.Campbell교수 초청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대학 C.M. Campbell교수 초청 "On the efficiency of some direct powers of groups" 주제와 강연이 기초과학연구소(소장 오명철 교수 생물학과)주최로 지난 9월16일 오후3시 수학과 합동세미나실에서 B21강의실에서 있었다.

발간소식

▲'축산론집'제6집이 농과대학 제주도 축산연구소(소장 김문철 축산학과 부교수)에 의해 지난 9월5일 발행됐다.

이번 제6집에는 정창조(축산학과)교수와 3인의 '제주마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체형특성' 김중계(축산학과)교수의 4인의 '제주마와 개량마의 번식상태와 번식장에 원인에 관한 연구' 등 23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한편 이 논문집은 정창조교수의 회갑기념호로 발간된 것이다.

▲'경원대학원요람(91~92)'이 지난 8월경 경원대학원(원장 김병국 교수 경영학과)에서 발간됐다.

이 요람에는 △92학년도 학사일정 △경영대학원 연혁 △기구 및 직제 △학칙 및 제규정 △교과과정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금요 영화 감상회

9월27일: "양철북"
10월18일: "장미의 이름"
10월25일: "나의 원망"
시 간: 매주 금요일 오후2시
장 소: 여학연구소 (사범대2층)



교수동정

▲김재하(식품공학과)교수=지난 9월16일 위장정(농학과)교수 후임으로 방사능 이용연구소장에 임명.

▲안장영(어업학과)부교수=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91년 10월1일부터 92년 9월30일까지 휴직.

▲하록(해양환경학과)조교수=9월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배기물관리기술 국제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가예정.

교직원동정

사무관 승진
이재훈·이영화씨



▲이재훈(농과대학 서무과 서무과장)·이영화(사무과 시설과 토목계장)씨가 지난 7월1일 행정사무관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 9월14일자로 각각 보직발령을 받았다.

이재훈·이영화 사무관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이재훈 서무과장=△49년 제주출생 △76년 농수산학부 신규임용 △82년 교무

처교무과 인사계장 △85년 사무과 총무과 인사계장 △87년 교무처 교무과 교무계장 △90년 교무처 학과 학적계장 △현재 농과대학 서무과 서무과장으로 재직.



○이영화 토목계장=△53년 제주출생 △73년 제주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근무 시작 △79년 우리학교 사무국 시설과로 전보발령 △현재 사무국 시설과 토목계장으로 재직.

동문소식

사법고시 2차합격
전호중 동문



전호중(법학과 85년 졸 31세)동문이 충무로가 지난 9월20일 발표한 제33회사법고시 2차시험에 합격했다.

제주시 아라동 출신인 전호중동문은 오현고를 거쳐

지난 85년 우리학교를 졸업,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공인회계사 2차합격
오성철 동문



오성철(경영학과 86년 졸 30세) 동문이 지난 9월20일 재무부가 발표한 '제26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최종합격했다(사건).

오성철 동문은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 출신으로 표선중·표선상고를 거쳐 지난 86년 우리학교를 졸업했다.

한편 우리학교 동문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것은 지난 88년 이정욱(회계학과 86년 졸)동문이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학과 소식

▲무역학과학생회(회장 김의철3)주최 제4회 '모의사상 중재' △일시=9월26일 △장소=경상대 0119강의실 △내용=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예학과학생회(회장 문원방3)주최 '제10회 실내연예전시회'가 오는 9월26일과 27일 양일간 4312강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테러리즘, 다슈가, 압화, 분제, 등걸이 등 70여개작품이 전시된다.

▲국민윤리교육과 학생회(회장 김승용3)주최 '제1회 청류제'가 오는 9월28일과

29일 양일간 사범대3323세미나실 및 소문중강당에서 열린다.

△28일:10시부터 소놀이마당(소문중강) 2시부터 분과 발표회(3323세미나실), 발표 주제: 민족사상분과=사대성·들의 민족사상에 대한 의식 조사, 정치문화분과=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연구, 서양윤리분과=변종법적 철학고찰

△29일=11시부터 장미마당(3323세미나실), 2시부터 동문·재학생체육대회(소문중강), 6시부터 캠프하이어(음광방).

▲행정학과학생회(회장 이삼범3)주최 '제8회 모의아라 지방의회' △일시=9월26일 오후4시 △장소=법정대 중강당 △안건=특별법.

▲독어독문학과 학생회(회장 김진3)주최 '제10회 Die Welt der Germanistik'가 오는 9월26일과 27일 양일간 인문대 진양터 및 법정대 중강당 등지에서 열린다.

△26일:학술발표회(인문대 세미나실, 오전 10시)~철학분과="schopenhauer의 생애와 사상", 희곡분과="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의 작품해설", 독일감독분과="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체육대회(아외을악당 오후1시).

△27일:사물놀이·독일가곡 공연·독시낭송·민중가요·연극공연="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법정대 중강당 오후1시).

▲'청사정론제'가 사학과 학생회(회장 양영숙3)주최로 오는 9월25일, 26일 양일간 인문대 세미나실 진양터와 소문중강 등지에서 열린다.

△25일:춘곡=맹모와 참교육(인문대 세미나실 11시30분)/세미나=배우주 토지개혁 정책을 통해서 본 미군정의 성격(인문대세미나실 1시

30분)/4·3슬라이드 상영(인문대세미나실 3시30분)/노래극="하늘아래 방한칸"(인문대세미나실 4시30분).

26일:체육대회 민족경기/유물·유적 답사 사진 전시회.

▲'제9회 물리학회'이 과학교육과 학생회(회장 오성택3)물리교육전공(회장 오광주3)주최로 오는 9월27일과 28일 양일간 법정대 중강당과 과학교육과 물리전공 실험실에서 열린다.

△27~28일:생활과학실험 전시(사범대 3138실험실) 전자기학실험전시(사범대 3135 실험실).

△28일:"함께 모여져서"(법정대 중강당 오후 1시30분) =과학철학분과 모의토론회 = "빛,세미나- '별의 최후'와 검은 구멍의 발견", 연극- '유실물'.

▲'제6회 훈노자 전시회'가 정보공학과 학생회(회장 김원방3)주최로 오는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정보공학과 실험실(공대 7112·7113실습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각 분과의 작품과 개인작품이 각각 6점씩 총12점이 전시된다.

▲영어교육과 학생회(회장 김지영3)주최 '제15회 PAR-NASSUS'가 오는 9월28일 오후4시30분 법정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음악학과 성악연구부(부장 임소형3)주최 '제2회 성악연구발표회'가 오는 9월27일 오후 7시 동아생명 문화센터에서 있다.

▲법학연구회(회장 김제성3)주최 '제8회 모의재판'이 "해고를 둘러싼 노·사분규에 있어서의 업무 방해죄(형법 제314조)의 성립여부"라는 주제에 오는 9월25일 오전 12시와 오후 7시에 법정대중강당에서 있다.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 3로

슈바빙의 낭만, 라인강의 예술과 기적, 부란덴부르크, 통일독일의 위용 —
그러나 가슴에 가장 크게 새겨진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재원 (삼성물산 해외전략팀 근무)
'88년 1월 삼성물산에 입사, 지난 90년 1월부터 12월까지 독신과전 지역 전문가제로 독일에서 생활한 전이언어, 생활습관, 문화와 제도 등을 자유롭게 익히고 돌아왔다. 독일이 통일되던 당시 물려받은 베를린 장벽에서 자신이 직접 깬 장벽 한 조각을 갖고 돌아와 불림이 꺼내보며 그때의 경험과 다짐을 다시 새기고 한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인재와 첨단기술의

학우의견 대폭 반영돼야 -총학생회칙 개정공청회를 보고

썰렁한 여름날씨가 스산하리만큼 쌀쌀한 가을분위기가. 여름옷을 입고있는 학우들의 살갗이 차갑게 보인다. 그리고 공청회가 열리는 지난 9월12일 중강당으로 향했다.

전날 20명정도 모인 것에 비하면 많이 보이는 학우들의 모습속에서 공청회가의 의미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회칙평가가 앞서 나의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멀고도 험난하리라는 실감을 안겨준 지난 공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

이유인즉슨, 질문에 대해 답변자의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혹은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조"라는 식의 해명은 불만을 잠재우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늦은감이 없지는 않지만 개정안에 대한 간단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첫째, 회칙개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 대하여, 회칙개정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아주 비밀리에 회칙개정 소위원회가 꾸려지고 회칙개정안이 대외적으로 유출된다는 비난을 학우들에게 일러왔다.

소위원회의 말을 빌리면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보안이었는가? 회칙은 회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의 그리고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외적인 의무와 권리를 개정하는 데 이따금 보안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소위원회위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기구 몇몇 대표를 이들 승인했음직지 모르지만) 개정안을 작성했다는 것은 본

사가 있는데도 제대인들의 동참이 너무나 부족하다. 여러 동아리에서 여는 많은 문화 행사들은 인원과 재정 부족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전체의 제대인들을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그마한 열의를 갖는다면 관심을 갖고 열매까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싼 돈을 들이면서 시내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교내의 여러 문화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제대인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속에 우리학교의 여러 연극과 노래 공연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강성돈 수학교육과)



濟大新聞은, 제대인이 다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본지기사, 혹은 학내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니 원고지 5매이내로 많은 투고 바랍니다.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자 쓰지않는 지식은 무용지물

이제 막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가을이 왔다. 누구든지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좋고도 좋은 천고마비 계절인 가을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막아야만 할 커다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특별법'에 관한 많은 자보나 문구들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 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글들을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두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냥 봐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지나쳐 버리는 사람과, 두번째는 유심히 읽어보고 생각해 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두가지 부류가 있다. 그렇다면 어느게 옳고 그르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어느 타지방의 문제도 아닌 바

수필-愛書狂이야기 책 한권과 아내를 맞바꾼 참뜻은

책천자부천자(册藏者父藏者)란 옛말이 있다. 책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부모도 천하게 여긴다는 뜻일 게다.

어렸을 적에 나는 조부님께 「천자문」, 「명심보감」등을 배우면서 귀가 아프도록 책을 귀히 여기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조부님은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향교의 좌수를 지내신 분이요. 조부님은 시인이 아닌데도 끝까지 한시나 시가를 남기지 않고 하셨다. 그런 시적 분위기 속에서 나는 그 리듬을 들으며 잠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 언제인가, 조부님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명나라 회경진사 주대소는 이름난 애서광(愛書狂)으로 한평생(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귀한 책)을 구하기 위해 중국 오백주를 찾아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어느날 우연히 「宋本後漢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책을 입수하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책 소장이 팔아 주질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온 재산을 다 내놓고 바꾸자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끝내 주대소가 자기 아내와 바꾸자고 흥정을 하면, 그제서야 책임자로 겨우 승락하는 것이다.

한 권의 책과 자기 아내를 바꾸기로 한 주대소에 게서 남편의 길, 학문의 길, 길을 잃을 수 있다가 보다 애서광의 면모를 읽게 된다.

한편 주대소의 부인은 한 마디의 불만도 없이 그 글자만 동양적 체념과 순종으로 가마를 타고 마음속 애원을 품은 채 정든 집을 떠나 간 것이다. 그녀가 집을 떠나면서 방 벽에 7언시 한 수를 남겼다. 그것은 애절한 심회를 읊은 것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었다.

뜻깊게 사람이 깨어져 떠나니

한 권의 책과 자기 아내를 바꾸기로 한 주대소에 게서 남편의 길, 학문의 길, 길을 잃을 수 있다가 보다 애서광의 면모를 읽게 된다.

한편 주대소의 부인은 한 마디의 불만도 없이 그 글자만 동양적 체념과 순종으로 가마를 타고 마음속 애원을 품은 채 정든 집을 떠나 간 것이다. 그녀가 집을 떠나면서 방 벽에 7언시 한 수를 남겼다. 그것은 애절한 심회를 읊은 것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었다.



○...한여름밤의 꿈
현재의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개정할 후 철저히 지키겠다는 정부의 발표.

해고자의 근로자 인정 조항 삭제, 노조정치활동 금지규정의 합리화 등 사용자의 요구만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해 다시 한번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데.

노동자의 눈이 살아 숨쉬는 한 '가라 노동자 세상, 정취하자 자본해방'을 부르짖는 정경유착의 결정체 노동법 개악은 '한여름밤의 꿈'을 깨달아야 할 것이요.

○...보통사람의 망언
속이 없는 말 보려다 틀들나면 보통사람의 실수.

"시위와 무관한 학생의 죽음은 가슴아픈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라"며 한국원씨의

죽음을 위로한 후 "국가안보의 경제 태세를 늦추지 말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보통사람의 어이없는 발언이 바로 그것.

이는 시위와 무관한 학생의 죽음은 가슴아픈 일 앞으로 국가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해 다음부터는 시위대원의 학생을 쏘아죽여야 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조.

○...畫圖夜樂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즐긴다.

지금 아라·我羅에서는 낮에는 특별법 저지를 위해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물론 노는 것도 좋고 축제도 좋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조금은 엄숙해야 할 수 있지.

○...막장은 도행정당국
행정당국이 특별법제정 반대운동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려

는 움직임.

특별법제정 반대를 위한 범도민 10만인 서명운동이 5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범도민 결기대회를 알리는 벽보를 짓고, 공권력을 동원해 서명운동을 방해하는 등 원시적인 행정단압 수법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어.

특별법을 중앙관제형으로 개편하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게 안개시더가, 그래서 마지막 회의를 결코 펼치지 서명운동까지 빈민주적 첩자로 진압해 야성이 풀리는가 보조.

○...노동단압의 조직화
이전 6공의 노동자탄압 양상도 다 각색이로 조직적으로 바뀌는 모양.

얼마전 부산 금호상사에서 대거 발원된 블랙리스트를 보면 구로공단 해고 노동자를 비롯해서 전국적 범위에서의 해고자 명단을 작성,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불순세력(?)에 대한 감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혹독분자는 안 된다든 모양인데 검은비리의 소유자인 6공의 거두께는 어떠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요.

“제대생들은 밤이 길다”
적극적 삶 아쉬워

‘소유나 존재냐’의 작가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에서 부를 소유하는 재벌가 계층보다 이상을 좇는 청춘의 삶을 동경한다. 무전여행도 하고 예술에 몰두하며 자기 마음먹은대로 하고 싶은대로 재물을 위해서 행동하는 삶을 찬양한다.

요즘 우리 학우들을 보면 공부하는 것이나 다른 생활하는 것들이 존재적 가치보다는 수단적 가치가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공부를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취업을 위해 어떤 전망을 위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 결코 얕은 진리를 위해 학문에 몰두하는 학생들은 다수가 아닐 것이다.

젊음이란 게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기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젊음은 그 자체로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 요인에 의해 퇴색되기 보다는 정신적인 것과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 의해 아름다운 색깔을 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수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위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제대생들은 밤이 길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밤새워서 공부하는 그 그림을 그려가거나 연극 연습을 하는 그 등등의 이상을 좇아 시간가는줄 모르게 젊음을 투자해야 할 것인데도 그렇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우리학우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우리는 존재를 위해 있는 것이지 소유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양창식 화학공학과)

컴퓨터 개강!

10월1일(火)

위치 중앙로 주택은행빌딩 아세아타워3층
전화 52-3321, 57-6878

부직희망자를 찾습니다

직	종	인	원	입	체	계속여부	보	수(원)	시	간·자	격
썰	빙	3~4명	(한식)까지식당	계속부직			250,000		10:00~22:00, 16:00~22:00 (백)		
부가장사(2명)	여	1명	행정청리학원	취	업		250,000		18:00~21:00		
BIT컴퓨터강사	여	1명	BIT컴퓨터	계속취업			월 320,000		10:00~20:30 (6개월과정 이수 학생 4학년 여)		
K2 주식중개	남	2명	영업(수입품)	계속취업			기본 300,000 +수당		09:00~18:00 (인문·법정·경영계열)		
지도교사	여	2명	아이템폴	계속취업			월 350,000이상		08:30~19:00 남원(1명), 모슬포(1명) 교원이수자		
수학강사	여	1명	월드임시학원	계속취업			기본 300,000 +수당		09:00~18:00 (인문·법정·경영계열)		
경	리	여	1명	경성상사			924~10.19		본인과결정	09:00~17:00 (야간학생)	
컴퓨터강사	남	1명	아이템폴 제주시점	계속취업			300,000		1일 3시간		
인 테 리 어 디자인관련	여	1명	신체주비전대장 건축배회점	계속취업			350,000		08:30~19:00		
수학강사	여	1명	월드임시학원	계속부직			본인과결정		저녁시간, 교사자격2급		
행 사 요 원	남	10명	전입동사무소	9.19~28			본인과결정		13:00~17:00		
안	내	남·여불문 5명	신한배회점	9.25~30			일당10,000		11:00~19:00		
통 계 조 사	남	2명	한국은행 제주지점	9.24~10.19			일당11,300 (중식포함)		상정계열		
과	외	남	1명	가정집 (여고년생)			본인과결정		1주일 2회, 수학교육과 1년		
한 글 지 도	남·여불문 2명		두리두리 제주시자	9.19~			기본200,000 +수당				

※ 자세한 사항은 장학담당관실로 문의 Tel 54-2060~1

장학담당관실

컴퓨터

“축” 제100기 기념 소프트웨어 공개 무료 COPY //

제102기 10월4일(金)

10월학기수강 접수중 (공휴일도)

- 제12차 교육실습기재 컴퓨터 도입 최신 SOFTWARE 1,000여종보유 실습실 공유일도 개방
- 1991년도 정보처리기사·기능사 시험안내(하반기)
- 기사1급·기사2급·기사3급·기사4급·기사5급·기사6급·기사7급·기사8급·기사9급·기사10급·기사11급·기사12급·기사13급·기사14급·기사15급·기사16급·기사17급·기사18급·기사19급·기사20급·기사21급·기사22급·기사23급·기사24급·기사25급·기사26급·기사27급·기사28급·기사29급·기사30급·기사31급·기사32급·기사33급·기사34급·기사35급·기사36급·기사37급·기사38급·기사39급·기사40급·기사41급·기사42급·기사43급·기사44급·기사45급·기사46급·기사47급·기사48급·기사49급·기사50급·기사51급·기사52급·기사53급·기사54급·기사55급·기사56급·기사57급·기사58급·기사59급·기사60급·기사61급·기사62급·기사63급·기사64급·기사65급·기사66급·기사67급·기사68급·기사69급·기사70급·기사71급·기사72급·기사73급·기사74급·기사75급·기사76급·기사77급·기사78급·기사79급·기사80급·기사81급·기사82급·기사83급·기사84급·기사85급·기사86급·기사87급·기사88급·기사89급·기사90급·기사91급·기사92급·기사93급·기사94급·기사95급·기사96급·기사97급·기사98급·기사99급·기사100급·기사101급·기사102급·기사103급·기사104급·기사105급·기사106급·기사107급·기사108급·기사109급·기사110급·기사111급·기사112급·기사113급·기사114급·기사115급·기사116급·기사117급·기사118급·기사119급·기사120급·기사121급·기사122급·기사123급·기사124급·기사125급·기사126급·기사127급·기사128급·기사129급·기사130급·기사131급·기사132급·기사133급·기사134급·기사135급·기사136급·기사137급·기사138급·기사139급·기사140급·기사141급·기사142급·기사143급·기사144급·기사145급·기사146급·기사147급·기사148급·기사149급·기사150급·기사151급·기사152급·기사153급·기사154급·기사155급·기사156급·기사157급·기사158급·기사159급·기사160급·기사161급·기사162급·기사163급·기사164급·기사165급·기사166급·기사167급·기사168급·기사169급·기사170급·기사171급·기사172급·기사173급·기사174급·기사175급·기사176급·기사177급·기사178급·기사179급·기사180급·기사181급·기사182급·기사183급·기사184급·기사185급·기사186급·기사187급·기사188급·기사189급·기사190급·기사191급·기사192급·기사193급·기사194급·기사195급·기사196급·기사197급·기사198급·기사199급·기사200급·기사201급·기사202급·기사203급·기사204급·기사205급·기사206급·기사207급·기사208급·기사209급·기사210급·기사211급·기사212급·기사213급·기사214급·기사215급·기사216급·기사217급·기사218급·기사219급·기사220급·기사221급·기사222급·기사223급·기사224급·기사225급·기사226급·기사227급·기사228급·기사229급·기사230급·기사231급·기사232급·기사233급·기사234급·기사235급·기사236급·기사237급·기사238급·기사239급·기사240급·기사241급·기사242급·기사243급·기사244급·기사245급·기사246급·기사247급·기사248급·기사249급·기사250급·기사251급·기사252급·기사253급·기사254급·기사255급·기사256급·기사257급·기사258급·기사259급·기사260급·기사261급·기사262급·기사263급·기사264급·기사265급·기사266급·기사267급·기사268급·기사269급·기사270급·기사271급·기사272급·기사273급·기사274급·기사275급·기사276급·기사277급·기사278급·기사279급·기사280급·기사281급·기사282급·기사283급·기사284급·기사285급·기사286급·기사287급·기사288급·기사289급·기사290급·기사291급·기사292급·기사293급·기사294급·기사295급·기사296급·기사297급·기사298급·기사299급·기사300급·기사301급·기사302급·기사303급·기사304급·기사305급·기사306급·기사307급·기사308급·기사309급·기사310급·기사311급·기사312급·기사313급·기사314급·기사315급·기사316급·기사317급·기사318급·기사319급·기사320급·기사321급·기사322급·기사323급·기사324급·기사325급·기사326급·기사327급·기사328급·기사329급·기사330급·기사331급·기사332급·기사333급·기사334급·기사335급·기사336급·기사337급·기사338급·기사339급·기사340급·기사341급·기사342급·기사343급·기사344급·기사345급·기사346급·기사347급·기사348급·기사349급·기사350급·기사351급·기사352급·기사353급·기사354급·기사355급·기사356급·기사357급·기사358급·기사359급·기사360급·기사361급·기사362급·기사363급·기사364급·기사365급·기사366급·기사367급·기사368급·기사369급·기사370급·기사371급·기사372급·기사373급·기사374급·기사375급·기사376급·기사377급·기사378급·기사379급·기사380급·기사381급·기사382급·기사383급·기사384급·기사385급·기사386급·기사387급·기사388급·기사389급·기사390급·기사391급·기사392급·기사393급·기사394급·기사395급·기사396급·기사397급·기사398급·기사399급·기사400급·기사401급·기사402급·기사403급·기사404급·기사405급·기사406급·기사407급·기사408급·기사409급·기사410급·기사411급·기사412급·기사413급·기사414급·기사415급·기사416급·기사417급·기사418급·기사419급·기사420급·기사421급·기사422급·기사423급·기사424급·기사425급·기사426급·기사427급·기사428급·기사429급·기사430급·기사431급·기사432급·기사433급·기사434급·기사435급·기사436급·기사437급·기사438급·기사439급·기사440급·기사441급·기사442급·기사443급·기사444급·기사445급·기사446급·기사447급·기사448급·기사449급·기사450급·기사451급·기사452급·기사453급·기사454급·기사455급·기사456급·기사457급·기사458급·기사459급·기사460급·기사461급·기사462급·기사463급·기사464급·기사465급·기사466급·기사467급·기사468급·기사469급·기사470급·기사471급·기사472급·기사473급·기사474급·기사475급·기사476급·기사477급·기사478급·기사479급·기사480급·기사481급·기사482급·기사483급·기사484급·기사485급·기사486급·기사487급·기사488급·기사489급·기사490급·기사491급·기사492급·기사493급·기사494급·기사495급·기사496급·기사497급·기사498급·기사499급·기사500급·기사501급·기사502급·기사503급·기사504급·기사505급·기사506급·기사507급·기사508급·기사509급·기사510급·기사511급·기사512급·기사513급·기사514급·기사515급·기사516급·기사517급·기사518급·기사519급·기사520급·기사521급·기사522급·기사523급·기사524급·기사525급·기사526급·기사527급·기사528급·기사529급·기사530급·기사531급·기사532급·기사533급·기사534급·기사535급·기사536급·기사537급·기사538급·기사539급·기사540급·기사541급·기사542급·기사543급·기사544급·기사545급·기사546급·기사547급·기사548급·기사549급·기사550급·기사551급·기사552급·기사553급·기사554급·기사555급·기사556급·기사557급·기사558급·기사559급·기사560급·기사561급·기사562급·기사563급·기사564급·기사565급·기사566급·기사567급·기사568급·기사569급·기사570급·기사571급·기사572급·기사573급·기사574급·기사575급·기사576급·기사577급·기사578급·기사579급·기사580급·기사581급·기사582급·기사583급·기사584급·기사585급·기사586급·기사587급·기사588급·기사589급·기사590급·기사591급·기사592급·기사593급·기사594급·기사595급·기사596급·기사597급·기사598급·기사599급·기사600급·기사601급·기사602급·기사603급·기사604급·기사605급·기사606급·기사607급·기사608급·기사609급·기사610급·기사611급·기사612급·기사613급·기사614급·기사615급·기사616급·기사617급·기사618급·기사619급·기사620급·기사621급·기사622급·기사623급·기사624급·기사625급·기사626급·기사627급·기사628급·기사629급·기사630급·기사631급·기사632급·기사633급·기사634급·기사635급·기사636급·기사637급·기사638급·기사639급·기사640급·기사641급·기사642급·기사643급·기사644급·기사645급·기사646급·기사647급·기사648급·기사649급·기사650급·기사651급·기사652급·기사653급·기사654급·기사655급·기사656급·기사657급·기사658급·기사659급·기사660급·기사661급·기사662급·기사663급·기사664급·기사665급·기사666급·기사667급·기사668급·기사669급·기사670급·기사671급·기사672급·기사673급·기사674급·기사675급·기사676급·기사677급·기사678급·기사679급·기사680급·기사681급·기사682급·기사683급·기사684급·기사685급·기사686급·기사687급·기사688급·기사689급·기사690급·기사691급·기사692급·기사693급·기사694급·기사695급·기사696급·기사697급·기사698급·기사699급·기사700급·기사701급·기사702급·기사703급·기사704급·기사705급·기사706급·기사707급·기사708급·기사709급·기사710급·기사711급·기사712급·기사713급·기사714급·기사715급·기사716급·기사717급·기사718급·기사719급·기사720급·기사721급·기사722급·기사723급·기사724급·기사725급·기사726급·기사727급·기사728급·기사729급·기사730급·기사731급·기사732급·기사733급·기사734급·기사735급·기사736급·기사737급·기사738급·기사739급·기사740급·기사741급·기사742급·기사743급·기사744급·기사745급·기사746급·기사747급·기사748급·기사749급·기사750급·기사751급·기사752급·기사753급·기사754급·기사755급·기사756급·기사757급·기사758급·기사759급·기사760급·기사761급·기사762급·기사763급·기사764급·기사765급·기사766급·기사767급·기사768급·기사769급·기사770급·기사771급·기사772급·기사773급·기사774급·기사775급·기사776급·기사777급·기사778급·기사779급·기사780급·기사781급·기사782급·기사783급·기사784급·기사785급·기사786급·기사787급·기사788급·기사789급·기사790급·기사791급·기사792급·기사793급·기사794급·기사795급·기사796급·기사797급·기사798급·기사799급·기사800급·기사801급·기사802급·기사803급·기사804급·기사805급·기사806급·기사807급·기사808급·기사809급·기사810급·기사811급·기사812급·기사813급·기사814급·기사815급·기사816급·기사817급·기사818급·기사819급·기사820급·기사821급·기사822급·기사823급·기사824급·기사825급·기사826급·기사827급·기사828급·기사829급·기사830급·기사831급·기사832급·기사833급·기사834급·기사835급·기사836급·기사837급·기사838급·기사839급·기사840급·기사841급·기사842급·기사843급·기사844급·기사845급·기사846급·기사847급·기사848급·기사849급·기사850급·기사851급·기사852급·기사853급·기사854급·기사855급·기사856급·기사857급·기사858급·기사859급·기사860급·기사861급·기사862급·기사863급·기사864급·기사865급·기사866급·기사867급·기사868급·기사869급·기사870급·기사871급·기사872급·기사873급·기사874급·기사875급·기사876급·기사877급·기사878급·기사879급·기사880급·기사881급·기사882급·기사883급·기사884급·기사885급·기사886급·기사887급·기사888급·기사889급·기사890급·기사891급·기사892급·기사893급·기사894급·기사895급·기사896급·기사897급·기사898급·기사899급·기사900급·기사901급·기사902급·기사903급·기사904급·기사905급·기사906급·기사907급·기사908급·기사909급·기사910급·기사911급·기사912급·기사913급·기사914급·기사915급·기사916급·기사917급·기사918급·기사919급·기사920급·기사921급·기사922급·기사923급·기사924급·기사925급·기사926급·기사927급·기사928급·기사929급·기사930급·기사931급·기사932급·기사933급·기사934급·기사935급·기사936급·기사937급·기사938급·기사939급·기사940급·기사941급·기사942급·기사943급·기사944급·기사945급·기사946급·기사947급·기사948급·기사949급·기사950급·기사951급·기사952급·기사953급·기사954급·기사955급·기사956급·기사957급·기사958급·기사959급·기사960급·기사961급·기사962급·기사963급·기사964급·기사965급·기사966급·기사967급·기사968급·기사969급·기사970급·기사971급·기사972급·기사973급·기사974급·기사975급·기사976급·기사977급·기사978급·기사979급·기사980급·기사981급·기사982급·기사983급·기사984급·기사985급·기사986급·기사987급·기사988급·기사989급·기사990급·기사991급·기사992급·기사993급·기사994급·기사995급·기사996급·기사997급·기사998급·기사999급·기사1000급·기사1001급·기사1002급·기사1003급·기사1004급·기사1005급·기사1006급·기사1007급·기사1008급·기사1009급·기사1010급·기사1011급·기사1012급·기사1013급·기사1014급·기사1015급·기사1016급·기사1017급·기사1018급·기사1019급·기사1020급·기사1021급·기사1022급·기사1023급·기사1024급·기사1025급·기사1026급·기사1027급·기사1028급·기사1029급·기사1030급·기사1031급·기사1032급·기사1033급·기사1034급·기사1035급·기사1036급·기사1037급·기사1038급·기사1039급·기사1040급·기사1041급·기사1042급·기사1043급·기사1044급·기사1045급·기사1046급·기사1047급·기사1048급·기사1049급·기사1050급·기사1051급·기사1052급·기사1053급·기사1054급·기사1055급·기사1056급·기사1057급·기사1058급·기사1059급·기사1060급·기사1061급·기사1062급·기사1063급·기사1064급·기사1065급·기사1066급·기사1067급·기사1068급·기사1069급·기사1070급·기사1071급·기사1072급·기사1073급·기사1074급·기사1075급·기사1076급·기사1077급·기사1078급·기사1079급·기사1080급·기사1081급·기사1082급·기사1083급·기사1084급·기사1085급·기사1086급·기사1087급·기사1088급·기사1089급·기사1090급·기사1091급·기사1092급·기사1093급·기사1094급·기사1095급·기사1096급·기사1097급·기사1098급·기사1099급·기사1100급·기사1101급·기사1102급·기사1103급·기사1104급·기사1105급·기사1106급·기사1107급·기사1108급·기사1109급·기사1110급·기사1111급·기사1112급·기사1113급·기사1114급·기사1115급·기사1116급·기사1117급·기사1118급·기사1119급·기사1120급·기사1121급·기사1122급·기사1123급·기사1124급·기사1125급·기사1126급·기사1127급·기사1128급·기사1129급·기사1130급·기사1131급·기사1132급·기사1133급·기사1134급·기사1135급·기사1136급·기사1137급·기사1138급·기사1139급·기사1140급·기사1141급·기사1142급·기사1143급·기사1144급·기사1145급·기사1146급·기사1147급·기사1148급·기사1149급·기사1150급·기사1151급·기사1152급·기사1153급·기사1154급·기사1155급·기사1156급·기사1157급·기사1158급·기사1159급·기사1160급·기사1161급·기사1162급·기사1163급·기사1164급·기사1165급·기사1166급·기사1167급·기사1168급·기사1169급·기사1170급·기사1171급·기사1172급·기사1173급·기사1174급·기사1175급·기사1176급·기사1177급·기사1178급·기사1179급·기사1180급·기사1181급·기사1182급·기사1183급·기사1184급·기사1185급·기사1186급·기사1187급·기사1188급·기사1189급·기사1190급·기사1191급·기사1192급·기사1193급·기사1194급·기사1195급·기사1196급·기사1197급·기사1198급·기사1199급·기사1200급·기사1201급·기사1202급·기사12